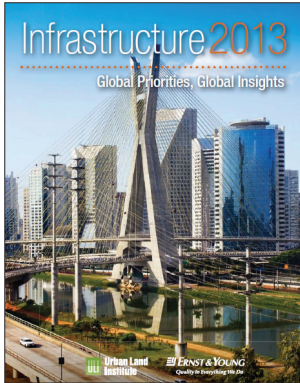


인프라 2013 / INFRASTRUCTURE 2013



Urban Land Institute,
Ernst & Young

2013

“Infrastructure 2013(이후 인프라 2013)”은 세계 5대 건설링 업체인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 EY)과 미국 국토계획연구를 수행하는 도시국토연구원(Urban Land Institute, ULI)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여타 보고서들이 중장기적 인프라 투자 전망이나 특정 국가의 인프라 현황에 대해 소개한 것에 비하여 이 보고서는 대륙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단기간(2~3년 내)에 집중적으로 인프라 시장 변화를 조사·연구한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는 많은 국가들이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투자는 국가들의 자연환경,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 방향은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 항목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및 남미의 신흥 국가들은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교통과 도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수도, 전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북미와 서유럽은 국가들은 2000년대 이전에 투자했던 인프라 개보수와 환경을 고려한 최신퉴크 적용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 언급한다.

투자 방식은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한 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가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는 민관협력 투자는 대규모 국부펀드와 인프라 기관 투자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언급한다.

개별 대륙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프라는 국가 발전 사업의 중심이 될 것이며, 투자 방향은 최신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는 대륙 간 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인 중국, 도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교통시설과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인도, 2011년 쓰나미로 인한 피해 복구와 경기 침체 극복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자할 예정인 일본 등이 될 것으로 언급한다. 신흥 국가가 밀집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대부분의 인프라 분야에서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은 전 세계 대륙 중 가장 낮은 인프라 투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국가 부채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 만약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유로존 내 국가들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증설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프라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그만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 및 법적 투자환경의 미비, 국가 내 정치적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많은 국가 및 기관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국내 유휴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자원 획득을 위하여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의 주택, 도로, 공장 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주 대륙에서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개보수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지역의 경우 캐나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 분야는 교통, 하수처리,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가 많다. 남미의 경우 브라질이 인프라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다. 브라질은 빈부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 기초 인프라(상수도, 주거 등) 투자, 2014년 월드컵에 대비한 관광 및 교통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성공적인 대도시권의 수출 계획을 위한 10단계 / TEN STEPS TO DELIVERING A SUCCESSFUL METRO EXPORT PLAN



The Brookings Institution
Metropolitan Policy Program

2012

미국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 중 하나인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로 대도시 정부에서 수출을 장려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상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도시가 수출을 장려할 경우 지역 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기반 시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 증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Step 1. 대도시권에서 글로벌로의 시장 확대(Go Metro To Go Global) 단계. 대도시들은 먼저 수출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하며 계획 수립 시에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및 그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Step 2.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Organize for Success) 단계. 수출 계획을 수립 시에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출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팀과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두 개의 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수출시장 자산, 수출계획, 수출에 대한 정부의 행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정책 결정자의 확고한 실행의지가 있어야 한다.

Step 3. 데이터에 의한 시장조사(Produce a Data-Driven Market Scan) 단계.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면, 3단계에서는 정확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초로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이때 조사할 데이터는 총 수출량, 수출성장 가능성, 수출을 통해 파생되는 일자리, 수출상품과 산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Step 4. 지역 시장 파악(Capture Local Market Insight) 단계. 이 단계에서는 수출에 관련된 담당자들과의 1:1 인터뷰 및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목적은 세 번째 단계에서 수집했던 정량적 데이터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 수출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있다.

Step 5. 수출 전략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Champion Exports Now) 단계.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때 기관 대표보다 실무자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이 홍보와 이해당사자의 지지 확보에 유리하다.

Step 6. 맞춤형 수출계획의 수립(Develop a Customized Export Plan) 단계. 전체 과정 중 가장 핵심은 6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도시 수출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이 문서는 대중을 설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단순하고 명료하며 강렬한 문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내용에는 대도시의 수출의 이유, 시장 평가에서의 주요 시사점, 계획의 목표와 목적, 목표와 목적을 위한 핵심 전략과 전술, 전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도, 실행 계획,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실행 목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Step 7. 실행을 위한 준비(Prepare for Implementation) 단계.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책임기관 간의 업무 분담 등 기타 관련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Step 8. 수출정책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Identify and Promote Policy Priorities) 단계. 이번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데이터와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Step 9. 지속적인 수출실적 조사 및 홍보(Track and Publicize Progress) 단계. 이 단계는 수출효과성에 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한 홍보 단계이다.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거시적인 수출 지표, 기업의 수출로 인한 이득, 기업 성공 스토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매트릭스의 형태로 변형이 되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완성된 자료는 보고서 형태로 제작되어 이해당사자들 및 시민들의 홍보 자료로 이용되어야 한다.

Step 10. 경제발전과 수출과의 연계(Mainstream Exports into Economic Development) 단계. 수출이 경제발전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이다. 브라질, 중국, 독일, 한국, 일본 등은 수출활동지표를 지역경제의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반면, 미국은 소비를 경제 발전의 기준점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수출은 지역 내 첨단 기술, 자본의 성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